

흡연유혹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 청소년과 성인 -

장성옥¹⁾ · 김은주²⁾ · 서문경애¹⁾ · 이수정³⁾ · 박창승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2000년대에는 67.6%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었고 2006년도에는 49.2%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대 남학생의 경우는 30%에 육박하고 여학생의 경우도 10.7%에 이르렀으나(Korea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0)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남학생은 15.7%, 여학생은 6.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Korea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6). 그러나 이는 아직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높은 흡연율이다.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흡연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흡연중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의 92%가 금연할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은 시도 율에 비해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단증상이나 흡연에 대한 습관적 탐닉과 같은 흡연에 대한 유혹이 금연을 유지하는데 주요 문제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hang & Park, 2001). 흡연

유혹은,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 정신적, 신체적 의존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적 조건이 개입되는 복합적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Chang, 2004). 이러한 흡연유혹은 금연을 시도하거나 상당기간 금연을 유지했던 사람도 재 흡연 상태에 빠지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흡연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연구 영역으로 이는 흡연에 빠지는 현상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Chang, 2004).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흡연유혹과 연관 지어 연구된 변수를 고찰하면, 범이론적 모델 관련 변인, 니코틴 의존과 관련된 변인, 그리고 우울과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있고, 인간 행위 동기이전 상태를 연구한 반전이론으로서 쾌락우세라는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기술하면,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에서는 금연행위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인 금연의 변화과정, 흡연의 이득과 비용(장애)에 초점을 두는 흡연 의사결정균형, 그리고 금연을 성취하도록 하는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둔 금연의 자아효능감의 변수와 자아효능감의 반대적 변수로 흡연유혹(Marcus, Rakowski, & Rossi, 1992)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니코틴과 흡연유혹에 관한 관계는 금단증상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Joan, 1998), 흡연유혹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관성있는 변수로 제시되는 것은 스트레스와 우울(Lee, Kang, Lee, & Lee, 2001; Brown, Lewinsohn, Seeley, & Wagner, 1996; Choi, Yang & Suh, 1995) 이 있다. 그외 반전이론(Reversal Theory)에서 소개하고 있는 쾌락 우세라는 개념

주요어 : 흡연

* 본 연구는 2005년도 고려대학교 간호학 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2)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3)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 4) 한라대학교 간호과 교수

투고일: 2005년 10월 8일 심사완료일: 2006년 4월 25일

이 있는데, 쾌락우세와 흡연유희과의 관계는 쾌락우세 상태에서는 진지함이 적고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며 금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담배는 괜찮다고 믿고자 함으로 목표 지향 상태의 대상자보다 흡연유희상태에 잘 빠진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O'Connell, Gerkovich, & Cook, 1995).

그간 흡연유희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흡연자가 속한 사회적 여건이며(Lindell & Reinke, 1999), 이는 흡연을 같이 하는 또래집단의 가치와 행동이 흡연유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을 같이 하는 연령대를 분리하여 흡연유희를 탐구하는 것은 연구결과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대상과 청소년 대상의 흡연을 중재할 때 연령대에 따라 초점을 두어 관리해야 할 변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또한 그간의 연구는 성인기의 흡연은 청소년층에 비해 고착이 쉽고, 사회 심리적 의존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금연성공이 어렵다는 결과가(Shin, 1992; Lee, Suh, & Cho., 1992)보고 된바 있다. 그외 청소년기는 스트레스를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고, 입시위주의 환경이라는 커다란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으로 흡연을 시도하게 된다는 연구(Lee, Kang, Lee, & Lee, 2001)로 연령대에 따라 흡연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유희에 영향하는 변인을 탐색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접근이다.

흡연유희는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현상이며 강하게 느낄수록 흡연을 지속하고, 금연했다가도 재 흡연 하게 되는 흡연 예측의 중요변수로(Chang, 2004a) 금연중재에서는 그 흡연유희의 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흡연자를 위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에 대한 의지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자신의 의지로 흡연유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2). 즉 흡연유희가 높은 집단뿐만 아니라 낮은 집단도 흡연유희가 높아지는 관련변수에 대한 중재는 효과적인 금연중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흡연유희의 극복방안을 금연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흡연유희와 관련된 제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에서의 흡연유희에 영향하는 제 변수의 탐구 및 흡연유희 정도에 따른 영향 변수확인인 금연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흡연유희와 연관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흡연집단과 성인흡연집단에서의 흡연유희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을 탐구함으로써 청소년

중심과 성인 중심의 금연프로그램 제작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에서의 흡연유희에 유의한 예측변인을 확인한다.
-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에서의 흡연유희의 정도에 따른 유의한 예측변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유희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흡연유희와 관련된 제 변수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성인집단과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집단의 두 집단으로 표집 하였다.

청소년 집단은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으로 2개교의 실업계와 2개교의 인문계 남녀 고등학생으로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 1년 이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3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집단은 서울 지역과 충청지역의 거주자 중 대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표집 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 1년 이내 흡연 경험이 있는 4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흡연유희와 흡연유희에 관련되는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하였으며, 대상자가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 되었으므로 개발된 도구 중 각 집단을 목표 집단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흡연유희와 의사결정균형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개발된 바 있으므로 각 집단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 흡연유희 측정 도구(smoking temptation scale)

본 연구에서 흡연유희는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 정신적, 신체적 의존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적 조건이 개입되는 복합적 현상이며(Chang, 2004a) 성인과 청소년 각각을 위한 흡연유희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성인용 흡연유희 측정도구: 성인을 대상으로 Chang(2004b)에 의해 개발된 5점 척도의 5개 요인으로 정신, 사회적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흡연유혹 6문항, 여유 추구 욕구로 인한 흡연유혹 6문항, 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흡연유혹 5문항, 습관적인 열망으로 인한 흡연유혹 4문항, 니코틴 의존으로 인한 흡연유혹 4문항으로 총 25개 문항으로서 25점에서 125점 범위의 흡연유혹에 대한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유혹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값은 .93이었다.

- 청소년용 흡연유혹 측정도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Jung (2005)에 의해 개발된 5점 척도의 4개 요인으로 습관적 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흡연유혹 9문항,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흡연유혹 6문항, 흡연의 중독성으로 인한 흡연유혹 4문항, 여유 추구 욕구로 인한 흡연유혹 3문항으로 총 22개 문항으로서 22점에서 110점 범위의 흡연유혹에 대한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유혹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값은 .91이었다.

●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scale)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흡연하고 싶은 상황에서 흡연을 자제할 수 있는 자심감에 대한 것으로(Velicer et al., 1990), 본 연구에서는 Velicer 등(1990)이 개발한 9문항으로 구성된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9점에서 45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88이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89이었다.

● 흡연의 의사결정 균형 측정도구(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 scale)

흡연에 관여되는 의사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관련 변수로 흡연에 대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이득적 측면(Pros for smoking)과 흡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장애적 측면(Cons for smoking)으로 이루어져 있다(Velicer et al., 1985).

- 성인용 흡연의 의사결정 균형 도구: 본 연구에서는 Velicer 등(1985)에 의해 개발되고 사용된 5점 척도 도구로서, 흡연의 이득적 측면(Pros) 3문항은 3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적 측면(Cons) 3문항은 3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각각의 측면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값은 이득적 측면 .74., 장애적 측면 .52였다.
- 청소년용 흡연의 의사결정 균형 도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Kim(2005)에 의해 개발된 5점 척도의 도구로 흡연의 이득적 측면(Pros) 8문항은 8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적 측면(Cons) 11문항은 11점에서 5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각각의 측면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Cronbach Alpha 값은 이득적 측면 .80, 장애적 측면 .80이었다.

● 금연의 변화과정 측정도구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scale)

흡연인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적응 기전과 전략을 의미하며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는 흡연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를 하는 인지적 과정, 그리고 금연을 실천할 때는 금연실천을 강화하는 행위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Prochaska, Velicer, DiClemente, & Fava, 1988). 본 연구에서의 변화과정은 Prochaska, Velicer, DiClemente와 Fava (1988)가 개발한 단축형 금연의 변화과정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과거 1개월간 흡연과 관련한 생각과 금연실천에 관한 경험을 매우 자주하였다(5점)부터 전혀 하지 않았다(1점)까지 5점 척도인 인지적 과정 10개 문항과 행위적 과정 10개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서 20점에서 100점 범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과정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청소년대상으로는 .86, 성인대상으로는 .87이었다.

●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perceived stress scale)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반응인 불쾌한 정서적 각성(Caplan, 1989)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한 달간 개인의 생활을 예측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큰 부담으로 평가한 주관적인 지각정도로 Cohen, Kamarck 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척도는 10개 항목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 척도의 10점에서 50점 범위의 도구로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청소년대상으로는 .66, 성인대상으로는 .79이었다.

● 니코틴 의존도 척도(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TQ)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정도를 보기위해 Fagerstrom(1989)이 고안한 8문항으로 구성된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구(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TQ)를 사용하였고, 이중 5문항은 2점 범위로서 각 문항은 0점에서 1점 범위이고, 3문항은 3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0점에서 2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니코틴 의존 점수는 0점에서 1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89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70이었다.

● 우울 측정도구(depression scale)

우울은 Chon과 Rhee(1992)가 한국인에 적용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다. CES-D는 지난주 동안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정상인의 우울을 규명하기 위해 개발된 4점 척도의 20개 문항의 자가 보고형 척도를 말한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 척도의 0-60점 범주에서 16점 이상은 우울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청소년대상으로는 .85, 성인대상으로는 .90이었다.

● 쾌락우세 측정도구(paratelic dominance scale)

쾌락우세는 개인의 행위수행에 관여되는 역동적 성향으로 진지함이 적고 목적 지향함이 적은 성향이 우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Potocky & Murgatroyd, 1993), 쾌락우세 측정도구는 Cook과 Gerkovich(1993)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쾌락성 10문항, 자발성 10문항, 각성 10문항의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예, 아니오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0점에서 30점 범위를 갖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쾌락우세가 높음을 의미하고 Cronbach Alpha는 청소년대상으로는 .59, 성인대상으로는 .69였다.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료 수집은 2005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흡연이 문제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흡연 청소년만을 선별할 수 없었기에 임의 선정된 4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9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작성요령을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작성된 모든 설문지를 회수하여 흡연을 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76부의 설문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청소년집단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4개교의 보건교사의 협조를 얻어 2명의 보건교사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한 동의를 학교로부터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은 200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흡연 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으로 서울지역 성인 흡연 남성 4인, 충청지역은 간호학과에 재학하는 학생 30인을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조원으로 선정하여 자료수집 방법을 교육한 후 연구조원과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현재 흡연을 하거나 최근 1년 이내까지도 흡연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직장인 중에

서 연구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대상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51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Window version 11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 변수와 흡연유희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고 흡연유희 군과 저 흡연유희군의 구분은 일변량 분석을 통하여 흡연유희 점수 상위 25%, 하위 25%의 대상자 군으로 구분하였다.
- 흡연유희의 영향변인 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대상자 376명의 성별은 남학생 266명(70.7%), 여학생 110명(29.3%)이었고, 평균 나이는 18.5세, 학년은 1학년 31명(8.2%), 2학년 93명(24.7%), 3학년 252명(67.0%)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흡연기간은 36.9개월, 평균 흡연량은 9.48개비/1일, 평균 흡연시작 나이는 15.07세이었다. 가족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264명(70.0%), 없는 경우가 111명(29.5%)으로 가족 흡연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흡연 동기는 호기심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자가 171명(4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가 권해서가 77명(20.2%), 스트레스가 76명(19.9%), 기타가 34명(8.9%),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18명(4.7%)이었다.

성인 대상자 451명의 평균 연령은 28.5세, 성별은 남성이 382명, 여성이 69명이었고, 흡연기간은 106개월, 흡연량은 하루 15.31 개피,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18.8세이었다. 직업분포는 대학생이 141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이 121명(26.8%), 회사원이 71명(15.7%), 자영업자가 45명(10.0%), 노동직이 23명(5.1%), 전문직과 무직이 각각 19명(4.2%), 교사가 9명(2.0%), 주부가 3인(0.7%)이었으며, 경제상태지각은 13명(2.9%)이 상으로 지각 하고 있었고 354명(78.5%)이 중으로, 84명(18.6%)이 하로 지각하고 있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자는 282명(62.5%)이었고, 169명(37.5%)은 흡연자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흡연 동기는 호기심 187명(41.5%), 스

트레스 95명(21.1%), 친구가 권해서 91명(20.2%),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44명(9.8%), 기타가 34명(7.5%)이었다.

제 변수의 특성

제 연구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각 변수의 평균값을 변수 고유 점수범위의 중간 값을 고려하여 평가할 때, 대상자의 흡연유혹 정도는 청소년 69.39, 성인 73.36으로 중상 정도였으며, 범이론적 모델 변수로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정도는, 청소년 22.76, 성인 25.06이었고, 의사결정 균형에서의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장애적 측면 평가는 청소년 17.62, 35.09, 성인 8.94, 8.67로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가 중하인 반면 그 외 제 변수는 중상 정도를 보여주었다. 행동적 변화에 초점을 둔 금연의 변화과정 정도는 청소년 54.45, 성인 55.76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중 정도를 나타내었다. 심리 기질적 요인으로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니코틴의존 및 쾌락우세 정도는 청소년 19.82, 4.54, 15.66, 14.60 성인 18.59, 4.08, 19.67, 13.55로 청소년은 중 정도를 나타낸 반면, 성인은 중하 정도를 나타내었다.

제 변수와 흡연유혹과의 관계

청소년의 경우 쾌락우세($r=.094$, $p=.070$)를 제외한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r=-.570$, $p=.001$), 흡연의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이득적 측면($r=.616$, $p=.001$) 및 장애적 측면($r=.357$, $p=.001$) 평가, 금연의 변화 과정($r=.185$, $p=.001$), 지각된 스트레스($r=.256$, $p=.001$), 니코틴 의존도($r=.521$, $p=.001$), 우울($r=.244$, $p=.001$)이 흡연유혹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성인의 경우 흡연의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장애적 요인평가($r=-.002$, $p=.96$)를 제외한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r=-.558$, $p=.001$), 흡연의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이득적 측면($r=.450$, $p=.001$), 금연의 변화 과정($r=.157$, $p=.001$), 지각된 스트레스($r=.279$, $p=.001$), 니코틴 의존도($r=.365$, $p=.001$), 우울($r=.323$, $p=.001$), 쾌락우세($r=.241$, $p=.001$)가 흡연유혹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Table 2>.

흡연유혹 예측변인

흡연유혹을 종속변수로 하여 제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청소년 집단에서는 니코틴의존도,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의 평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 지각된 스트레스, 쾌락우세가 종속변수인 흡연유혹을 57% 설명하고 있었고, 성인집단에서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우울, 니코틴 의존도, 금연에 대한 변화과정, 쾌락우세,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가 흡연유혹을 52% 설명하고 있었다.

<Table 1> The mean level of the variables of smoking temptation

Variables	Adolescent Smokers(N=376)			Adult Smokers(N=451)		
	Mean	SD	Range	Mean	SD	Range
Smoking temptation	69.39	21.12	22-110	73.36	19.75	25-125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22.76	9.88	9- 45	25.06	8.50	9- 45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17.62	5.26	8- 40	8.94	2.78	3- 15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Cons)	35.09	7.95	11- 55	8.67	2.86	3- 15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54.45	15.40	20-100	55.76	13.34	20-100
Perceived stress	19.82	5.88	10- 50	18.59	5.61	10- 50
Nicotine dependency	4.54	2.08	0- 11	4.08	2.32	0- 11
Depression	15.66	8.82	0- 60	19.67	10.72	0- 60
Paratelic dominance	14.60	3.99	0- 30	13.55	4.44	0- 30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and smoking temptation

Variables	Adolescent Smokers(N=376)		Adult Smokers(N=451)	
	Smoking temptation		Smoking temptation	
	r	p-value	r	p-value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570	.001	-.558	.001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616	.001	.450	.001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Cons)	.357	.001	-.002	.961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185	.001	.157	.001
Perceived stress	.256	.001	.279	.001
Nicotine dependency	.521	.001	.365	.001
Depression	.244	.001	.323	.001
Paratelic dominance	.094	.070	.241	.001

회귀계수인 베타의 크기로 영향력을 추론할 때, 독립변수 중 청소년 집단은 니코틴의존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 지각된 스트레스, 쾌락우세의 순으로 흡연유혹에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이었다. 성인집단에서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흡연유혹에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도 부적인 영향을 갖는 예측변인이었고 그다음으로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우울, 니코틴의존도, 금연의 변화 과정, 쾌락우세,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의 순서로 흡연유혹에 영향력 있는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Table 3>.

흡연유혹 정도에 따른 흡연유혹 예측변인

흡연유혹 수준에 따른 집단별 흡연유혹의 영향변인을 규명

하기 위해 청소년, 성인 각 집단을 흡연유혹으로 일변량 분석하여 상위 25%와 하위 25%를 구분하여 흡연유혹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각 집단에서 흡연유혹이 높은 군과 낮은 군 각각으로 총 4집단으로 나누어 흡연유혹을 종속변수로 하여 제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흡연유혹이 높은 청소년 집단군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우울, 니코틴의존도,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의 평가가 종속변수인 흡연유혹을 39% 설명하고 있었고, 흡연유혹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금연의 변화과정, 흡연의 이득적 측면 평가, 금연의 자아효능감, 흡연에 이득적 측면 평가, 쾌락우세, 지각된 스트레스가 흡연유혹을 51% 설명하고 있었다. 성인집단에서는 흡연유혹이 높은 군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지각된 스트레스가 흡연유혹을 29% 설명하고 있었으며, 낮은 군에서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Table 3> Predictive variables on smoking temptation

Variables		Beta	t	p-value	R	R ²	F	p-value
Adolescent smokers (N=376)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290	7.138	.000	.551	.304	149.011	.000
	Nicotine dependency	.311	8.053	.000	.665	.443	134.944	.000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242	-6.260	.000	.711	.505	115.252	.000
	Perceived stress	.177	4.878	.000	.735	.540	99.156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Cons)	.179	4.624	.000	.752	.565	87.457	.000
	Paratelic dominance	.079	2.182	.030	.756	.571	74.488	.000
Adult Smokers (N=451)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412	-11.846	.000	.558	.311	202.398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332	9.499	.000	.661	.437	173.653	.000
	Depression	.157	4.539	.000	.693	.480	137.215	.000
	Nicotine dependency	.142	4.024	.000	.707	.500	111.156	.000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128	3.729	.000	.714	.510	92.596	.000
	Paratelic dominance	.093	2.702	.007	.721	.520	79.885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Cons)	-.077	-2.194	.029	.724	.525	69.750	.000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on high and low smoking temptation

Variables			Beta	t	p-value	R	R ²	F	p-value	
Adolescent Smokers	High level of smoking temptation (N=95)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213	-2.352	.021	.397	.158	16.829	.000	
		Depression	.337	3.960	.000	.516	.266	16.118	.000	
		Nicotine dependency	.252	2.877	.005	.576	.332	14.588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246	2.864	.005	.624	.390	13.887	.000	
	Low level of smoking temptation (N=93)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330	3.219	.002	.471	.222	19.361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162	1.596	.116	.552	.305	14.691	.000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274	-3.043	.003	.600	.360	12.366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Cons)	.345	3.433	.001	.642	.412	11.386	.000	
Adult smokers	High level of smoking temptation (N=114)	Paratelic dominance	.253	2.730	.008	.685	.469	11.305	.000	
		Perceived stress	.212	2.366	.021	.716	.512	11.030	.000	
		Low level of smoking temptation (N=104)	Nicotine dependency	.270	3.128	.002	.384	.147	19.319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255	3.130	.002	.478	.228	16.403	.000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218	-2.548	.012	.509	.259	12.814	.000	
	Perceived stress		.207	2.466	.015	.546	.299	11.574	.000	
	Low level of smoking temptation (N=104)	Self 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512	-6.499	.000	.611	.373	60.048	.000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Pros)	.196	2.606	.011	.637	.405	34.062	.000	
Paratelic dominance		.175	2.260	.026	.661	.437	25.674	.000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150	1.987	.050	.677	.458	20.739	.000		

쾌락우세, 금연의 변화과정이 흡연유희를 47%를 설명하고 있었다.

회귀계수인 베타의 크기로 영향력을 추론할 때, 독립변수 중 청소년 집단에서 흡연유희가 높은 군에서는 우울이 가장 유의한 흡연유희의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니코틴의존도,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흡연유희를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흡연유희가 낮은 군은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가 가장 높은 흡연유희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연의 변화 과정이 흡연유희와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집단에서는 흡연유희가 높은 군은 니코틴의존도가 흡연유희에 가장 높은 예측변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가 흡연유희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또한 흡연유희가 낮은 군에서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은 흡연유희의 예측변인이었으며, 다음으로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쾌락우세가 흡연유희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흡연유희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집단 내에서도 흡연유희가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에 있어서 흡연유희의 영향 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금연 중재가 흡연유희를 극복하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Kim, 2002),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의 중재 초점 정도가 달라야 하고 아울러 흡연유희의 정도도 역시 고려해야 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흡연유희와 관련된 제 변수를 추론하고,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비교하여 흡연유희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인데, 그동안 이와 같이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었던 관계로 전체 분석결과를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류한 각 분류 집단에서 흡연유희에 가장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집단에서 흡연유희의 가장 높은 예측변인으로는 니코틴의존도,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인 반면 성인집단에서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은 예측변인이었고 그 다음이 흡연의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였다.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금연을 시도할 때 금연의 성공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청소년, 성인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개념(Lee, Kang, Lee, & Lee, 2001; Shin, Lee, & Park, 2000)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 흡

연유희에 가장 유의한 영향변수가 니코틴 의존도인 점은 선행연구에서 성인이 흡연기간이 길어 니코틴에 더 의존되어 금연하기가 어렵다는 연구보고(Lee, Suh, & Cho, 1992; Choi, Yang, & Suh, 1995)와는 다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은 금연동기가 낮으며 흡연초기에 흡연이 빠르게 습관화된다는 점(Lee, Kang, Lee, & Lee, 2001)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빠른 흡연의 습관화가 니코틴 의존과 깊게 관련된 결과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인의 경우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가 흡연유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는 비흡연자는 흡연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을 주로 표현하는 반면에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과 연관된 긍정적 경험을 주로 표현하여 흡연을 원하게 되는 기전에 흡연과 연관된 긍정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보고(Kouimtsidis, 2000)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를 고려할 때 흡연을 좋게 평가하려는 개인적 흡연 특성이 흡연중재에서 사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변수임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변수와 흡연유희와의 상관관계 및 회귀계수의 방향 특성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추론하기 어려운 변수관계는 금연의 변화 과정이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에게 있어 흡연유희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청소년 집단의 경우 흡연에 대한 장애적 평가가 흡연유희와 부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해석하면 금연을 위한 변화과정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흡연유희를 저해하는데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또한 청소년 집단은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흡연유희를 저해하는데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은 흡연유희가 금연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재흡연 하는데 기여하는 주요 변수인 점이라는 보고(Chang, 2004)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지만 이에 더해해서 성인,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흡연유희와 높은 상관을 가지면서 부적 상관을 보인 변수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연중재에서 단지 금연전략을 강의하고,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것보다 금연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아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큰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척도는 긍정적 정서 상황, 부정적 정서 상황, 그리고 습관적 니코틴 갈망상황에서 얼마나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항목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자아효능감을 주요 구성으로 하는 중재는 일관적으로 금연전략을 강의하거나 흡연의 폐해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 흡연과 연관된 상황에서 흡연유희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개별적 접근 위주로 구성함이 장기적으로 금연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집단에서 흡연유혹이 높은 군은 우울이 흡연유혹과 가장 높은 유의한 예측관계를 갖고 그 다음이 니코틴의존도가 흡연유혹과 유의한 예측관계가 있었다. 반면 흡연유혹이 낮은 군은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고, 그다음 영향력 있는 변수가 금연의 변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흡연에 쉽게 습관화 되는 흡연유혹이 높은 군은 청소년이 입시교육에 치중한 학교 교육으로 인한 갈등에 대응할 능력이 취약하여 좌절하고 우울할 때 더욱 흡연에 빠지기 쉽다는 한국적 상황(Lee, Kang, Lee, & Lee, 2001)을 고려할 때, 흡연을 단순한 비행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자체만을 금하도록 하는 대책보다는 청소년의 학교 내 적응능력을 아울러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대책이 금연을 유지하도록 하고 흡연을 예방하는 한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적 흡연에 탐닉하지 않는 흡연유혹이 낮은 집단에서는 흡연의 위해적 측면을 강조하고 금연의 변화과정인 금연 전략을 교육하는 것 역시 금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면 성인집단에서는 흡연유혹이 높은 군은 니코틴의존도가 가장 높게 흡연유혹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이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가 흡연유혹과 유의한 영향력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흡연유혹이 낮은 군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부정적으로 가장 높게 흡연유혹의 예측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흡연의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그리고 쾌락우세가 흡연유혹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예측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에 매우 탐닉한 성인 대상자는 니코틴 중재를 하고 아울러 흡연의 이득적 평가를 낮게 하도록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이 흡연중재에 효과적이며, 흡연에 낮게 탐닉된 성인대상자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높여주면서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를 낮게 하도록 사고를 전환시키도록 하며 아울러 금연을 위한 중재를 구성할 때, 대상자가 흥미를 갖도록 재미있게 하는 것이 흡연유혹 중재에 더욱 효과적인 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것은 AHCPR(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 Research)는 임신 중, 심근경색 후,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 시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Ashp Report, 1999)점과 Hall, Munoz, Reus와 Sees(1993)의 연구에서 금연실패와 부정적 정서는 상호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관리에 어려움은 니코틴 의존 때문이었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볼 때, 흡연유혹이 높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니코틴 대체요법을 금연중재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한 부정적 정서와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의 고리를 중재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정

서적 측면의 중재와 니코틴 대체 요법의 실행이 청소년 흡연 중재에 매우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유혹과 연관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련 변인 중 청소년 흡연집단과 성인흡연집단에서의 흡연유혹에 영향하는 관련변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령을 참고로 하여 2003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451명,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37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흡연유혹의 유의한 영향 변수는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에서 차이를 보였고, 각 집단에서도 흡연유혹이 높은 군과 낮은 군에 있어서 흡연유혹의 영향 변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 집단에서 흡연유혹의 가장 높은 예측 영향변인으로는 니코틴의존도 그리고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인 반면 성인집단에서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은 예측 영향변인이었고 그 다음이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였다. 청소년 집단에서 흡연유혹이 높은 군은 우울이 흡연유혹과 가장 높은 유의한 예측 영향변인이었고 그 다음이 니코틴의존도가 흡연유혹과 유의한 예측 영향변인이었고 흡연유혹이 낮은 군은 흡연에 대한 장애적 측면 평가가 가장 높은 흡연유혹의 예측변인이었고 그리고 금연의 변화 과정이 흡연유혹과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반면 성인집단에서는 흡연유혹이 높은 군은 니코틴의존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흡연유혹이 예측변인이었고 그다음은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흡연유혹에 영향력 있는 예측 변인이었으며 흡연유혹이 낮은 군은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부정적으로 흡연유혹과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이었고 그다음은 흡연에 대한 이득적 측면 평가 그리고 쾌락우세가 흡연유혹의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이었다.

본 연구결과분석에서 흡연유혹을 극복하는 면을 강조하는 금연 중재는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의 중재 초점이 달라야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우울한 부정적 정서와 흡연의 니코틴 의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재를 고려해야하며, 성인의 경우는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재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흡연유혹의 정도를 고려하여 중재집단을 세분화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다르게 구성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차별성 있는 흡연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shp(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Report (1999). ASHP therapeutic position statement on smoking cessation. *Am J Health-Syst Pharm*, 56(5), 460-464.
- Brown, R. A., Lewinsohn, D. M., Seeley, J. R., & Wagner, E. F. (1996). Cigarette smoking, major depression and psychiatric disorders among adolescents. *J Am Aade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602-1610.
- Caplan, G. (1989). Mastery of stress: Psychosocial aspects. *Am J Psychiatry*, 138, 413-420
- Chang, S. O., & Park, C. S. (2001). Analysis of smoking temptation, nicotine dependency, perceived health status corresponding to stage of change. *J Korean Acad Fund Nurs*, 8(1), 69-80.
- Chang, S. O. (2004a).The concept development of smoking temptation, *J Korean Acad Nurs*, 34(1), 160-171.
- Chang, S. O. (2004b).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Korean smoking temptation, *J Korean Acad Nurs*, 34(5), 849-858.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v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 Health Soc Behav*, 24, 585-396.
- Chon, K. K., & Rh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 Psychol* 11(1), 65-76.
- Cook, M. R., & Gerkovich, M. M. (1993). The development of paratelic dominance scale, In Kerr, J. H., Murgatroyd, S. & Apter, M.(Ed), *Advances in reversal theory*,(pp. 177-188).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Choi, J. H., Yang, Y. J., & Suh, H. G. (199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moking of medical studen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J Acad Family Med*, 16(2), 157-171.
- Fagerstrom, K. O., & Schneider, N. G. (1989). Measuring nicotine dependence: a review the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J Behav Med*, 12(2), 159-182.
- Hall, S. M., Munoz, R. F., Reus, V. I., & Sees, K .L. (1993). Nicotine, negative affect, and depression. *J Consult Clini Psychol*, 61(5), 761-767.
- Joan, S. (1998). Nicotine withdrawal. *J Am Med Assoc*, 279(23), 1857.
- Jung, K. H. (2005). *The development of smoking temptation scale of the adolescent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Kim, H. O. (2002). Effect of a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the stop-smoking rate and nicotine dependency for the adult smoker. *J Korean Community Nurs*, 13(1), 5-16.
- Kim, J. E. (2005). *A study on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decisional balance for smoking of adolescent smok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orea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www.kash.or.kr, 2006
- Kouimtsidis, C. (2000). Role of craving in substance misuse. *Curr Opinion in Psychiatry*, 13(3), 299-303.
- Lee, C. H., Suh, H. S., & Cho, H. J. (1992). The pattern of smoking of family medicine out-patients, *J Acad Family Med*, 13(11), 853-861.
- Lee, J. H., Kang, E. S., Lee, M. H., & Lee, Y. E. (2001). The effect of self-efficacy program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Comm Nurs*, 12(3), 716-731.
- Lindell, K. O., & Reinke, L. F. (1999). Nursing strategies for smoking cessation. *Heart Lung*, 28(4), 295-302.
- Marcus, B. H., Selby, V. C., Niaura, R. S., & Rossi, J. P. (1992). Self-efficacy and the stages of exercise behavior change, *Res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3(1), 60-66.
- 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2000. yearbook of health*. Seoul: Health newspaper publisher.
- Potocky, M., & Murgatroyd, S. (1993). What is reversal theory, In Kerr, J. H., Murgatroyd, S. & Apter, M.(Ed), *Advances in reversal theory*,(pp. 13-26).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Prochaska, J. O., Velicer, W. F., DiClemente, C. C., & Fava, J. L. (1988). Measuring the processes of change: Applications to the cessation of smoking. *J Consult Clini Psychol*, 56, 520-528
- O'Connell, K. A., Gerkovich, M. M., & Cook, M. R. (1995). Reversal theory's mastery and sympathy states in smoking cessation. *Image J Nurs Sch*, 27(4), 311-316.
- Shin, S. R., Lee, D. S., & Park, J. W. (2000). The effect of life smoking cessation program-multidisciplinary approach, *J Korean Acad Nurs*, 30(1), 110-121.
- Shin, H. C. (1992). The strategies for smoling cessation in family medicine. *J Acad Family Med*, 13(2), 853-861.
- Velicer, W. F., DiClemente, C. C., Prochaska, J. O., & Brandenburg, N. (1985). A decisional balance measure for assessing and predicting smoking status. *J Personality Soc Psychol*, 48, 1279-1289.
- Velicer, W. F., DiClemente, C. C., Rossi, J. S., & Prochaska, J. O. (1990). Relapse situation and self-efficacy: an integrative model. *Addic Behav*, 15, 271-283.

Comparison of Influential Variables for Smoking Temptation between Adolescent and Adult Smokers

Chang, Sung Ok¹⁾ · Kim, Eun Ju²⁾ · Seomun, Gyeong-Ae¹⁾ · Lee, Su Jeong³⁾ · Park, Chang Seung⁴⁾

1)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 Department of Nursing, Kukdo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Nursing, Halla College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influential variables on smoking temptation between groups: adolescent smokers and adult smokers.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76 adolescent smokers in 4 high schools and 451 adult smokers in community settings in South Korea. Univariate statistics and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smoking temptation for adolescent smokers was nicotine dependency. On the other hand,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smoking temptation for adult smokers was self-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In the high smoking temptation group, depression and nicotine dependency were the predictors for smoking temptation for adolescent smokers and nicotine dependency and pros for smoking were the predictors for smoking temptation for adult smokers. In the low smoking temptation group, cons for smoking and process of change for smoking abstinence were the predictors on smoking temptation for adolescent smokers and self-efficacy for smoking abstinence and pros for smoking were the predictors on smoking temptation for adult smokers.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t influential variables on smoking temptation according to age groups and level of smoking temptation. Smoking-cessation interventions should be tailored to the level of smoking temptation of the individual smokers.

Key words : Smok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ng, Sung Ok
Korea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126-1, 5-ka, Anam-dong, Sungbuk-ku, Seoul 136-705, Korea
Tel: 82-2-3290-4918 Fax: 82-2-927-4676 E-mail: sungok@korea.ac.kr